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이 상담평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김원중 김계현

(서울대 교육학과)

본 연구는 상담자의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가 상담자의 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모의상담연구방법을 통하여 알아본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20명(남자:256명, 여자:264명)의 대학생을 피험자로 하여 모의상담사례의 녹음자료를 듣게한 후 그 상담의 상담자와 상담과정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독립변인은 ①상담자의 성 ②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이고, 종속변인은 ①관찰자의 상담자 평가(CRF) ②관찰자의 상담회기 평가(SEQ), ③관찰자의 내담자 상담만족도 평가(CSQ)이며, 실험설계는 관찰자의 성도 함께 고려하여 3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 X 2 (상담자의 성) X 2 (피험자의 성)의 중다요인실험설계(factorial design)였다. 독립변인 중 자기개방 수준은 ①무개방, ②상담자의 사실적 경험을 공개하는 저친밀도 개방, ③상담자의 감정까지 공개하는 고친밀도 개방으로 조작되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상담자의 성에 따라 상담평가에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고친밀도가 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세가지 종속변인에서 모두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저친밀도 자아개방만으로도 무개방보다 좋은 평가를 받으며, 고친밀도 자아개방은 저친밀도 자아개방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결과는 자기개방에 관한 사회적 지각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사회심리학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언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기개방은 개인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는 물론 상담과 정신치료의 전략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Rogers (1961), Mower(1964), Truax 와 Carkhuff(1965) 등은 상담 및 정신치료의 성패는 내담자나 환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털어놓으려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였으며, Worthy, Gary와 Kahn (1969), Cozby(1972) 등은 상담관계에서의 자기개방의 교호성 효과(reciprocity effect)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도 자기개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상담자 자기개방의 상담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서 항상 일관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내담자의 자기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DeForest & Stone, 1980; Jourard & Jaffee, 1970; Powell, 1968; Thase & Page, 1977; Truax & Carkhuff, 1965), 일부의 연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거나 (Ehrlich & Graeven, 1971), 혹은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Polansky, 1967). 또한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상담자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Drag, 1969; Jourard & Friedman, 1970; Nillson, Strassberg, & Bannon, 1979)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Curtis, 1981; Dies, 1973; Wiegel, Dinges, Dyer and Straumfjord, 1972)도 있어 상담자 자기개방의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Cozby(1973)는 자기개방과 정신건강 간에는 곡선적 관계가 있어,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자기개방은 모두 부적응과 관계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Goffman(1967)은 어떤 사람의 정신건강은 그의 행동의 적절성의 정도에 달려있으며, 사회적 인간관계의 법칙과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곧 그의 정신상태가 건강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기개방과 정신건강의 관계도 자기개방이 얼마나 상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다. 자기개방이 요청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이 자기개방을 하는 것이나 혹은 반대로 자기개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화 과정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은 물론 그러한 부적절한 자기개방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하게 돼 결국 대인관계에서의 결함과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Chaikin과 Derlega(1974a)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똑같은 자기개방이라도 그것이 교호적이지 않으면 - 즉 한사람이 상대방에 비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자기개방을 하면 -, 교호적인 경우보다 더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러

운 것으로 지각되고 평가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자기개방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요인과 원리, 즉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자기개방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극히 드물다. 자기개방에서의 교호성의 중요성을 밝힌 Chaikin과 Derlega의 연구(1974a)와 상대방과의 친밀도, 연령 차이 등에 따른 자기개방의 효과 차이를 살펴본 연구(Chaikin & Derlega, 1974b) 등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상담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수행된 자기개방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해보면 자기개방행동에는 남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ozby는 1973년의 연구에서 그때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해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개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Reis, Senchak와 Solomon(1985)은 그후의 연구에서도 최소한 친한 친구사이의 자기개방 양태를 조사한 연구 중에는 Cozby의 그런 결론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 연구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Cozby의 자기개방에 관한 종합적 개관 이후 수행된 연구들은 단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새롭게 밝혀냈을 뿐이다.

첫째, 자기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emotion)을 주로 개방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자신에 관한 사실(fact)을 주로 개방한다(Morton, 1978; Rubin, Hill, Peplau, & Dunkel-Schetter, 1980). 둘째, 자신의 감정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여자는 '자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와 같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하여 남자는 '나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와 같이 주

로 긍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개방한다(Rubin, Hill, Peplau, & Dunkel-Schetter, 1980). 셋째, 자기개방을 꺼리는 이유에 있어서도, 남자는 주로 말해 보아야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반면에 여자는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Burke, Weir, & Harrison, 1976). 넷째, 한가지 특이한 것은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날 때는 상대방이 남자일 때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자가 처음보는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자기개방을 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아마 상대방 여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때문일 것이다(Delega, Winstead, Wong, & Hunter, 1985).

자기개방행동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이외에도, 인간관계에서의 자기개방의 기능을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 중 여자들을 피험자로 하였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자기개방이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Frankfurt, 1965; Jourard, 1959b) 반하여,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자기개방에 의한 효과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hrlich & Greaven, 1971; Jourard & Landman, 1960). 또한 자기개방자에 대한 호감도 평가 연구에서도 똑같은 자기개방을 하더라도 개방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관찰자들로 부터 호감을 받지만 남자인 경우에는 반대로 호감을 잃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Derlega & Chaikin, 1976; Chelune, 1976; Kleinke, 1979; Petty & Mirels, 1981)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성(性)

은 자기개방에 있어 중요한 개인차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Hoffman-Graff(1976), Hoffman과 Spencer(1976) 등은 남자 상담자와 여자 상담자는 똑 같은 내용과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더라도 그들의 성에 따라 내담자에게 전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담효과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담관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성차 이외의 다른 개인차에 따른 상담자의 자기개방의 효과(예, Dies & Cohen, 1973; McCarthy, 1982; Simonson, 1976; Weigel, Dinges, Dyer, & Straumfjord, 1972)나, 내담자의 성차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차에 따른 상담자의 자기개방 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많은데 반하여(예, 금명자, 1984; 김수현, 1987; 채계숙, 1988; Stokes, Childs, Fuehrer, 1981), 상담자의 성에 따라 상담자의 자기개방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연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예, Brooks, 1974; DeForest & Stone, 1980; McCarthy, 1979), 그 연구들도 주 관심은 내담자의 성변인 등의 다른 변인들이고, 상담자의 성은 그저 한번 알아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도 없이 포함시켜 본 정도였다. 본 연구는 그러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상담자의 성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자의 성에 따른 상담자의 자기개방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

한다. 피험자는 K 대학교, H 대학교, S 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표집된 남학생 256명과 S 대학교, K 대학교, T 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표집된 여학생 264명, 총 520명이었다. 피험자들은 교양과목(예:정신건강)이나 교직과목(예:청소년발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사 회학 등)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피험자들의 학과는 인문대, 사회대, 사범대, 법대, 자연대, 공대, 예술대 등의 각 학과로서 다양하였다.

2. 실험설계 및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상담자의 성과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이다. 그러나 관찰자의 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험설계는 3(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 X 2(상담자의 성) X 2(피험자의 성)의 중다요인실험설계(factorial design)로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방법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모의상담사례의 녹음자료를 듣게한 후 그 상담의 상담자와 상담과정을 내담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ㄱ. 상담자의 성

본 연구의 모의상담 녹음 작업에 상담자로 참여한 남·녀 상담자는 두명 모두 실제 상담자로서 S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거나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남자 상담자와 여자 상담자는 둘 다 만 31세 였다.

ㄴ.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은 ①무개방 ②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 ③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 등 모두 3 수준이다.

상담자 자기개방의 각 수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무 개 방:상담자는 자기개방을 전

혀 하지 않는다.

②저친밀도 자기개방:상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지난 과거사만을 사실적 수준에서 개방한다.

③고친밀도 자기개방:상담자는 저친밀도 자기개방에 더하여 자신의 감정과 판단까지도 개방한다.

내담자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 대한 상담자 자기개방 반응의 3 가지 수준 예는 다음과 같다.

내담자: 성적은 말씀드리기가 좀 창피한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지요? 작년 1 학기 때에는 2.12 이었고, 2 학기에는 2.32였습니다. 그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성적에 대해 이야기해야할 때마다 얼마나 창피하고 한심스러운지... 선생님은 저의 이런 기분을 잘 모르실거예요. 선생님은 학점이 저 같지는 않으셨을테니까... 참, 작년 1 학기에는 F도 하나 있었어요.

상담자:①무 개 방: 아, 그래요? 나는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대학교 때 내 학점이 어 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②저친밀도 자기개방: 아, 그래요? 실은 나도 대학교 때 학점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특히 2 학년 때는 F를 두건가 받아서 학점이 엉망이었어요,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나지만.

③고친밀도 자기개방: 아, 그래요? 실
은 나도 대학교 때 학
점이 좋은 편은 아니었
어요... 특히 2 학년 때
는 F를 두건가 받아서
학점이 엉망이었어요,
정확하게 얼마였는지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나지만. 설마 F가 나
올까 하고 있다가 정말
F를 받고 나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구요. 창피
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야단맞을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고, 또 나 자
신에 대해 실망감도 들
고. 한동안 혼자 걱정
 많이 했어요.

ㄷ. 내담자의 성

본 연구의 모의상담 녹음 작업에 내담자로
참여한 사람은 K 대학의 2 학년 남학생과 같
은 K 대학의 3 학년 여학생이었다.

3. 실험조작 확인

제작된 녹음자료의 상담자 자기개방 자극
이 각 수준에 따라 피험자들에게 변별적으로
지각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실험을 하였다. 예비실험에
서는 모든 실험조건을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하
였으며 상담과정 평가척도로는 본 연구자가 제
작한 10개 문항의 7점 척도인 상담자 자기개
방 수준 평가지(최저점수 10점, 최고 점수 70
점)를 사용하였는데, 결과로서 관찰자들은 모
의상담 녹음자료의 상담자의 자기개방 행동을
지각함에 있어 남·녀 상담자 사례에서 공히

상담자의 무개방보다는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
방을, 그리고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 보다는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을 통계적으로 의미있
는 수준으로 더 높이 평가함으로써(남자상담자
녹음자료: 무개방=16.82, 저친밀=43.26, 고
친밀=62.85, $F=542.97$, $p<.001$, 여자상담
자 녹음자료: 무개방=18.51, 저친밀=43.75,
고친밀=61.45, $F=302.04$, $p<.001$),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녹음자료의 상담자 자기개방 자
극은 각 수준에 따라 관찰자들에게 변별적으로
지각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종속변인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내담자의 입장에서
상담대본을 보며 상담녹음자료를 들은 후 각각
의 상담장면에 대한 상담자 평가, 상담회기 평
가, 내담자 상담만족도 평가를 하게 하여 종속
변인으로 하였다. 다음은 종속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들이다.

ㄱ. 상담자 평가척도: 관찰자의 상담자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상담자 평가척도
(CRF: Counselor Rating Form)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Barak과 LaCrosse에 의
해 1975년에 최초로 제작된 후, Barak과
Dell(1977), LaCrosse(1977)에 의해 2회에
걸쳐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상
담자의 전문성, 호감도, 성실성에 대한 관찰자
의 지각을 양극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7점 척
도 36 문항(각 하위척도 별로 12문항)을 통하
여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의 변안에는 4
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가 대학생
85명(남학생 46명, 여학생 39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이 척도의
Cronbach 내적 합치도는 = .97 (전문성 =

.92, 호감도 = .93, 신뢰성 = .94)이었다.

ㄴ. 상담회기 평가질문지: 관찰자의 상담과정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Stiles (Stiles & Snow, 1984)의 상담회기평가질문지 (SEQ: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상담회기의 순조로움(smoothness)과 깊이(depth)를 평가하며, 각 하위 척도는 양극형용사로 이루어진 7 점 척도의 5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상희(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가 대학생 85명(남학생 46명, 여학생 39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이 척도의 Cronbach 내적 합치도는 $\alpha = .80$ (순조로움 $\alpha = .80$, 깊이 $\alpha = .79$)이었다.

ㄷ. 내담자 상담만족도 평가질문지: 관찰자의 내담자 상담 만족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Attkisson(Larsen, Attkisson, Hargreaves & Nguyen, 1979)의 내담자 상담만족도 질문지(CSQ: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관찰자용으로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단일 요인을 측정하며 8개 문항, 7점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SQ는 내담자에 의한 상담의 중도포기와 내담자가 보고하는 문제 해결의 정도, 증상의 치료 등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eenfield, 1983; Robert & Attkisson, 1984). 본 질문지의 번안에는 4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가 대학생 85명(남학생 46명, 여학생 39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이 질문지의 Cronbach 내적 합치도는 $\alpha = .96$ 이었다.

5. 실험절차

본 실험은 피험자들의 강의 시간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실시되었다. 가능한 한 학생 수 30명 이내의 소형강의를 선택하였으며, 30명 이상의 대형 강의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발된 피험자 30명 정도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게 하여 한번에 실험을 받는 학생 수는 역시 30명 이내가 되게 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실험조건의 피험자로는 적어도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교 학생, 혹은 같은 학교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강좌의 학생이 섞여있다.

남자피험자는 남자내담자의 상담녹음자료를 듣게 하고, 여자피험자는 여자내담자의 상담녹음자료를 듣게 함으로써, 관찰자가 녹음자료 중의 내담자 입장을 좀 더 깊이 공감하여, 이 상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담자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결 과

1. 전체사례를 대상으로 한 3원변량분석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자료를 3원변량분석하였다. <표 1>은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상담자의 성, 자기개방 수준, 관찰자의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점수, 상담회기 평가점수, 내담자만족도 평가점수를 3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1을 보면, 주효과로는 자기개방 수준의 효과 만이 3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담자의 성에 의한 주효과는 3개 평가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관찰자의 성에 의한 주효과는 다른 2개 평가에는 없고 내담자만족도 평가에서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표 1.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상담자의 성, 자기개방 수준, 관찰자의 성에 따른 상담자 평가점수(CRF), 상담회기 평가점수(SEQ), 상담 만족도 평가점수(CSQ)의 3원변량분석결과

변량원	자유도	F		
		상담자평가점수	상담회기평가점수	내담자만족도평가점수
상담자의 성(가)	1	1.11	.40	.67
자기개방수준(나)	2	40.94 ***	15.03 ***	18.25 ***
관찰자의 성(다)	1	1.58	2.20	4.44 *
가 X 나	2	3.09	4.83 **	2.88
가 X 다	1	5.62	2.02	1.73
나 X 다	2	.98	.02	.71
가 X 나 X 다	2	.54	1.52	2.48

* $p < .05$, ** $p < .01$, *** $p < .001$

리고 2 변인의 상호작용효과 중에는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상담자 평가와 상담회기평가에, 상담자 성과 관찰자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상담자평가에 있으며, 3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3개 평가 모두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는 표 1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만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구체적이고도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자기개방 수준의 주효과

ㄱ. 상담자평가에 있어서의 자기개방 수준의 주효과

상담자평가에 있어서 자기개방 수준의 주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담자의 성이나 관찰자의 성과는 상관없이 상담자가 다른 수준의 자기개방을 할 경우, 그에 대한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녀 상담자의 구

별없이 전체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점수 평균을 자기개방의 수준 간 비교하고, 또한 평균의 개별비교를 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표 2를 보면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자평가점수(CRF)는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과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이 무개방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았으며,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과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상담자평가의 하위요인인 전문성 평가점수, 호감도 평가점수, 신뢰성 평가점수 별로 비교해보면 전문성 평가점수의 경우에는 상담자평가점수(CRF)와 양상이 같았으나, 호감도 평가점수와 신뢰성 평가점수의 경우에는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과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이 무개방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이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에

표 2.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점수(CRF) 및 전문성, 호감도, 신뢰성 평가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Scheffe개별비교

자기개방수준	N	M	SD	F	Scheffe 개 별 비 교		
					1	2	3
상담자평가점수							
1. 무개방	125	130.92	30.65				
2. 저친밀	203	154.37	29.98	40.07***	*		
3. 고친밀	192	161.48	30.49		*		
전문성평가점수							
1. 무개방	125	45.12	10.61				
2. 저친밀	203	51.44	9.90	18.74***	*		
3. 고친밀	192	51.83	10.69		*		
호감도평가점수							
1. 무개방	125	42.83	11.18				
2. 저친밀	203	50.31	11.19	36.80***	*		
3. 고친밀	192	53.81	11.18		*	*	
신뢰성평가점수							
1. 무개방	125	42.96	11.24				
2. 저친밀	203	52.61	10.78	54.45***	*		
3. 고친밀	192	55.83	10.84		*	*	

* $p < .05$, *** $p < .001$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개방을 안하는 상담자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개방을 하는 상담자에 비해 부정적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밝혀주며, 또한 자기개방을 하더라도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는 상담자는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는 상담자에 비해 전문성에서는 더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호감과 신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ㄴ. 상담회기평가에 있어서의 자기개방 수준의 주효과

상담회기평가에 있어서 자기개방 수준의 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담자의 성이나 관찰자의 성과는 상관없이 상담자가 다른 수준의 자기개방을 할 경우, 상담과정에 대한 관찰자의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녀 상담자의 구별 없이 전체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회기평가점수 평균을 자기개방의 수준 간 비교하고, 또한 평균의 개별비교를 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표 3을 보면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회기평가점수(SEQ)는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과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

표 3.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회기 평가점수(SEQ) 및 순조로움, 깊이 평가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Scheffe개별비교

자기개방수준	N	M	SD	F	Scheffe 개 별 비 교		
					1	2	3
상담자회기평가점수							
1. 무개방	125	35.68	6.96	14.63***			
2. 저친밀	203	38.04	7.00		*		
3. 고친밀	192	40.21	7.88		*	*	
순조로움평가점수							
1. 무개방	125	20.24	4.39	12.23***			
2. 저친밀	203	21.52	4.15		*		
3. 고친밀	192	22.60	4.02		*	*	
깊이평가점수							
1. 무개방	125	15.43	3.63	9.76***			
2. 저친밀	203	16.52	4.09				
3. 고친밀	192	17.60	4.90		*	*	

* $p < .05$, *** $p < .001$

이 무개방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았으며, 또한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이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회기평가의 하위요인인 순조로움 평가점수와 깊이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순조로움 평가점수의 경우에는 상담회기평가점수(SEQ)와 양상이 같았으나, 깊이 평가점수 경우에는 무개방과 저친밀도 수준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만이 무개방과 저친밀도 수준의 두가지 자기개방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자기개방을 안하는 상담회기는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개방을 하는 상담회기에 비해 부정적으로 지각되며, 또한 상담자가 자기개방을 하더라도 고친

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면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는 경우에 비해 더 좋은 상담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나, 상담의 깊이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무개방과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곧 상담자의 상담이 깊이있는 것으로 지각되기 위해서는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공개를 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그럴 때는 상담자가 꼭 고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해야만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ㄷ. 내담자 상담만족도평가에 있어서의 자기개방 수준의 주효과

내담자 상담만족도평가에 있어서 자기개방 수준의 주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담자의 성이나 관찰자의 성과는 상관없이 상담자가 다른 수준

의 자기개방을 할 경우, 내담자의 상담만족도에 대한 관찰자의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녀 상담자의 구별없이 전체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내담자 상담만족도 평가점수 평균을 자기개방의 수준 간 비교하고, 또한 평균의 개별비교를 해 봄으로써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표 4를 보면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내담자 상담만족도 평가점수(CSQ)는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과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이 무개방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았으며, 또한 고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이 저친밀도 수준 자기개방에 비해 서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상담만족도 평가점수(CSQ)의 평균, 표준편차 및 Scheffe개별비교

자기개방수준	N	M	SD	F	Scheffe 개별비교		
					1	2	3
1. 무개방	125	24.49	8.31				
2. 저친밀	203	28.51	9.77	17.71***	*		
3. 고친밀	192	31.09	10.28		*	*	

* $p < .05$, *** $p < .001$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자기개방을 안하는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개방을 하는 상담에 비해 내담자들의 상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자들에게 지각되며, 또한 상담자가 자기개방을 하더라도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면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는 경우에 비해 내담자가 더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밝혀준다.

3. 관찰자 성의 주효과

관찰자 성변인의 주효과는 내담자 상담 만족도 평가에서만 나타났다. 내담자 상담 만족도평가에 있어서 관찰자 성의 주효과가 있다는 것은 상담자의 성이나 자기개방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관찰자의 성에 따라 내담자의 상담만족도 평가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구별없이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개방의 수준에 따른 관찰자의 내담자상담만족도 평가점수 평균을 관찰자의 성 간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다.

표 5를 보면 남·녀 관찰자의 내담자 상담 만족도 평가에서는 남자 관찰자들이 여자관찰

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상담에 있어서는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더 까다로운 대상으로서 상담자가 똑같이 상담을 하더라도 남자들에 비해 덜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보자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더 너

표 5. 관찰자의 성에 따른 상담만족도 평가점수(CSQ)의 평균 비교

관찰자의 성	N	M	SD	t
남자 관찰자	256	29.37	10.06	1.96 *
여자 관찰자	264	27.66	9.78	

* $p < .05$

그러운 대상으로 똑같은 상담일 경우에도 여자들에 비해 더 큰 만족을 느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4.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7. 상담자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상담자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은 관찰자들이 상담자의 자기개방수준에 따라 상담자를 평가할 때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 그 평가양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자들의 상담자평가경향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1

과 같다.

상담자평가의 하위요인별로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유무를 알아본 결과, 상담자의 전문성평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없고 호감도평가와 신뢰성평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림 2와 그림 3은 호감도평가와 신뢰성평가에 나타난 상호작용효과의 도해이다.

그림 2와 그림 3을 보면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에 있어 남자상담자의 저친밀 수준의 자기개방과 고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여자상담자의 저친밀 수준의 자기개방과 고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찰자의
상담자평가
점수(C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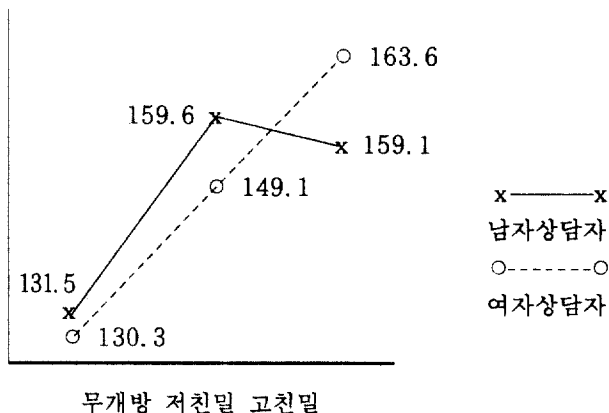


그림 1.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관찰자의
상담자 호감도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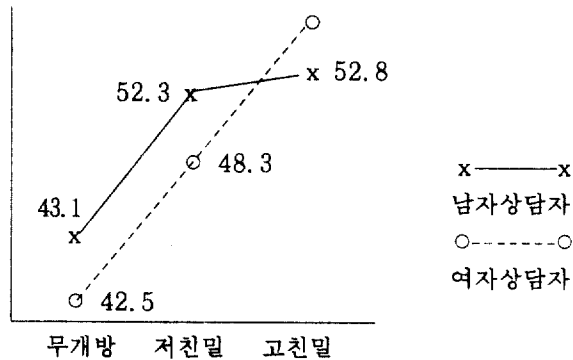


그림 2. 관찰자의 상담자 호감도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관찰자의
상담자 신뢰성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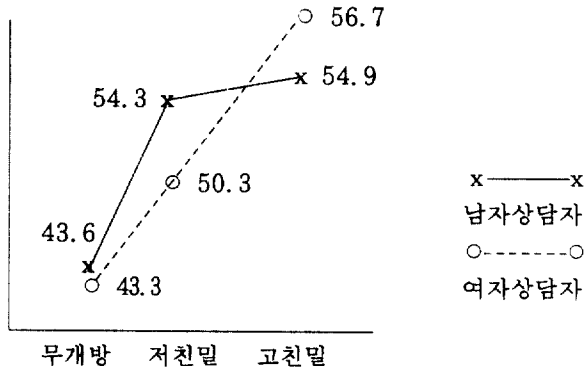


그림 3. 관찰자의 상담자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관찰자들은 남·녀 상담자가 똑 같이 저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는 여자상담자에 비해 남자상담자를 높이 평가하며, 남·녀 상담자가 똑 같이 고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는 그와 반대로 남자상담자에 비해 여자상담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즉, 남자상담자의 저친밀수준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자의 평가점수와 고친밀도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점수는 점수의 크기로 볼 때 모두 여자상담자의 저친밀 수준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점수와 고친밀 수준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점수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상담자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상담자의 3가지 수준의 자기개방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자 지각 양상은 상담자의 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다.

ㄴ. 상담회기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상담회기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은 관찰자들이 상담자의 자기개방수준에 따라 상담회기를 평가할 때 상담자의 성별에 따라 그 평

가 양상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자들의 상담회기 평가 경향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상담회기평가의 하위요인별로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유무를 알아본 결과, 상담자의 순조로움의 평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없고 깊이의 평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림 5는 깊이의 평가에 나타난 상호작용효과의 도해이다.

그림 4와 그림 5를 보면 관찰자의 상담회기 평가에 있어 남자상담자의 저친밀 수준의 자기개방과 고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에 대한 평

가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여자상담자의 저친밀 수준의 자기개방과 고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에 대한 평가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찰자들은 남·녀 상담자가 똑 같이 저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는 여자상담자의 상담에 비해 남자상담자의 상담을 높이 평가하며, 남·녀 상담자가 똑 같이 고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는 그와 반대로 남자상담자의 상담에 비해 여자상담자의 상담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즉, 남자상담자의 저친밀수준 자기개방에 따른 평

관찰자의
상담회기
평가점수
(S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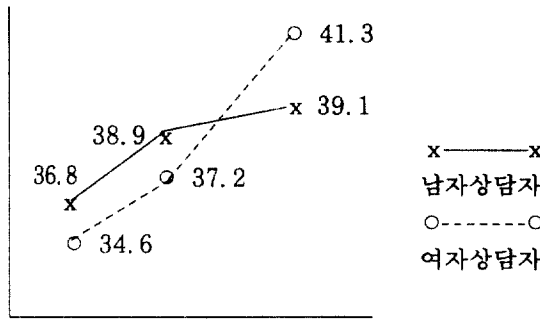


그림 4. 관찰자의 상담회기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관찰자의
상담깊이
평가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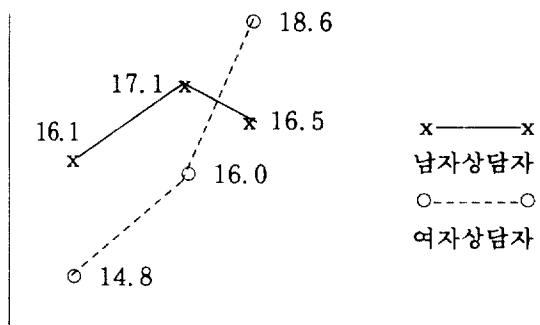


그림 5. 관찰자의 상담 깊이의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자기개방 수준의 상호작용효과

가자의 상담회기평가점수와 고친밀도 자기개방에 따른 상담회기평가점수는 점수의 크기로 볼 때 모두 여자상담자의 저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에 따른 상담회기 평가점수와 고친밀 수준의 자기개방에 따른 상담회기 평가점수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상담회기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의 성과 자기개방 수준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상담자의 3가지 수준의 자기개방에 따른 관찰자의 상담회기 지각 양상은 상담자의 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는 것이다.

5. 상담자 성과 관찰자 성의 상호작용효과

상담자의 성 변인과 관찰자의 성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관찰자의 상담자평가에서만 나타났다. 상담자 평가에 있어서 상담자의 성과 관찰자의 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다는 것은 관찰자들의 상담자 평가는 상담자의 성과 내담자 성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자들의 상담자평가경향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상담자평가의 하위요인별로 상담자의 성과 내담자의 성의 상호작용효과 유무를 알아본 결

과, 상담자의 전문성평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없고 호감도평가와 신뢰성평가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림 7과 그림 8은 호감도평가와 신뢰성평가에 나타난 상호작용효과의 도해이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을 보면 남자관찰자들은 남자상담자에 비해 여자상담자를 더 높이 평가하는데 반하여, 여자상담자들은 여자상담자에 비해 남자상담자를 더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 관찰자들은 모두 동성의 상담자보다는 이성의 상담자를 더 좋게 평가한 것이다.

관찰자의 상담자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상담자의 성과 관찰자의 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나, 상담자의 호감도와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상담자와 관찰자의 성적 구성(sex-pairing)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자의 자기개방이 상담자의 성에 따라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 상담회기 평가, 내담자 상담만족도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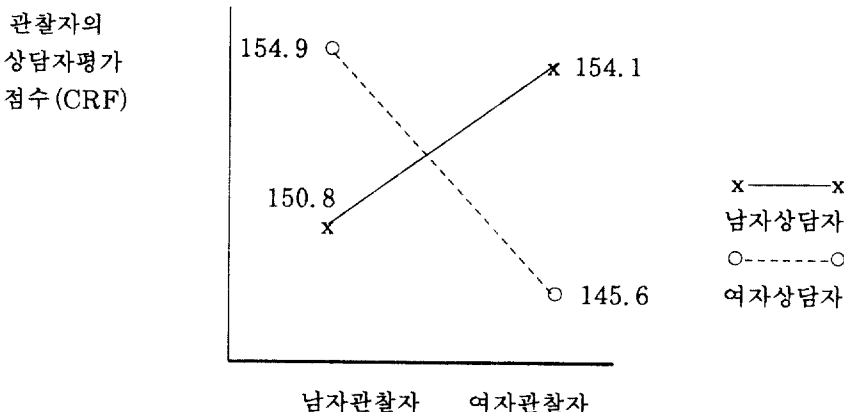


그림 6. 관찰자의 상담자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관찰자 성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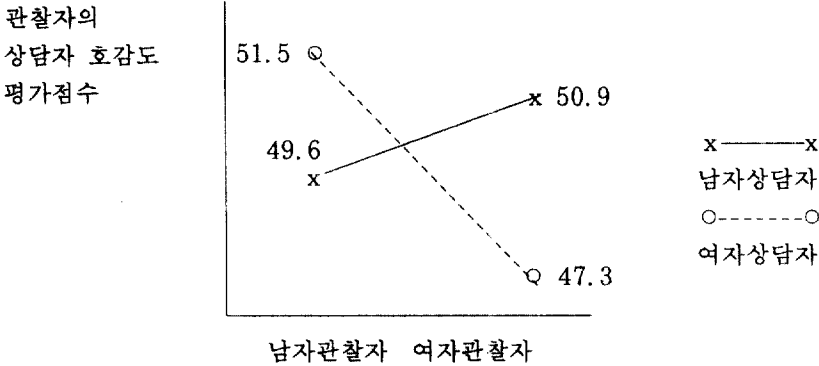


그림 7. 관찰자의 상담자 호감도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관찰자 성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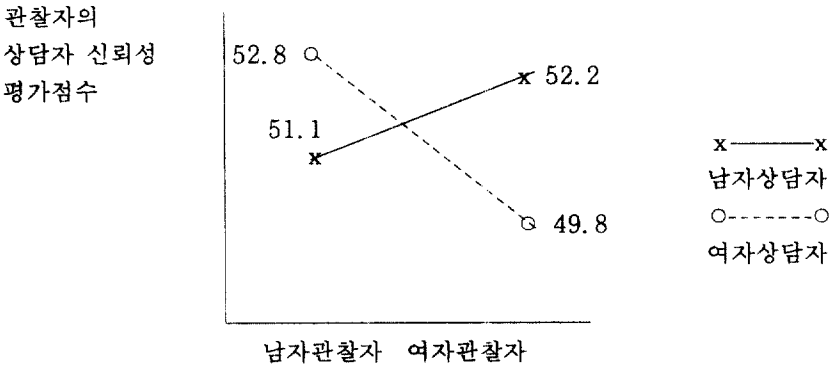


그림 8. 관찰자의 상담자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과 관찰자 성의 상호작용효과

치는지 알아본 것이다. 상담자의 자기개방과 상담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결과에 일관성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상호작용에서 자기개방에 대한 지각은 그 사회의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참조하여, 상담자의 자기개방에 상담자의 성변인을 첨가하였다. 즉, 남자 상담자의 자기개방과 여자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관찰자에게 다르게 지각되며, 이 지각의 차이는 그들의 상담평가에 달리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다.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상담자의 경우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면 무개방을 했을 때나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했을 경우에 비해 관찰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반하여 남자 상담자의 경우에는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여도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한 경우에 비해 관찰자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평가의 하위요인인 전문성, 호감도, 신뢰성 요인 별로 살펴보면, 남녀 상담자의 자기개방에 대한 관찰자의 그러한 지각 차이는 상담자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성의 경우에만 나

타나며, 전문성 지각에 있어서는 남녀 상담자 모두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더라도 저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하는 경우에 비해 더 높이 평가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녀 상담자의 자기개방에 대한 관찰자의 지각의 차이는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호감도와 신뢰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상담자의 경우에는 상담 과정 중에 자신의 감정을 풍부하게 노출하더라도 사실적 수준의 내용만을 언급했을 때에 비해 관찰자로 부터 전문성, 호감도, 신뢰성의 3 가지 평가 측면 중 어느 하나에서도 더 높이 평가받지 못하였는데 반하여, 여자상담자의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과거사와 더불어 그때의 감정까지 이야기하면, 단지 과거 사실만을 이야기했을 때에 비해, 비록 더 전문적이라고 지각되지는 않지만, 호감과 신뢰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이 평가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까지 노출하는 친밀도가 높은 자기개방을 하는 여자는 상대방이 남자는 여자든 모두로 부터 호감을 받지만, 반대로 친밀도가 높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한 남자는 오히려 호감을 상실한다고 한 Derlega와 Chaikin (1976), Chelune (1976), Kleinke(1979), Petty와 Mirels (1981) 등의 주장은 본 연구처럼 상담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맞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남자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해도 (남자상담자가 저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나 여자상담자가 고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에 비해) 관찰자들로 부터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히려, 여자상담자가 고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하면 관찰자로부터 높은 호감을 받는다고 보다는, 고친밀도의 자기개방을 안하면 관찰자로 부터 꽤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상담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와는 달리, 남자상담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고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해도 결코 부정적으로 지각되지는 않으며, 여자 상담자의 경우에 오히려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면 남자 상담자가 저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나 여자 상담자가 고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꼭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속을 터놓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일이라는 일반적 인식때문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자상담자는 자신의 성역할과 달리 고친밀도의 자기개방을 해도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반면, 여자상담자는 자신의 성역할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단지 사실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두번째로 관찰자의 상담회기평가에 있어서도 여자상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가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면, 무개방이나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했을 때에 비하여 상담회기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데 반하여 남자상담자의 상담 경우에는 상담자의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중의 상담자 자기개방의 수준은 남자상담자의 상담의 경우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데 반해서, 여자상담자의 상담에는 뚜렷한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자상담자의 자기개방도 그것이 단지 과거 사실이나 경험만을 언급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며, 오직 과거 사실이나 경험의 공개와 더불어 그때의 자신의 감정도 함께 언급해야만 그 상담이 더 좋은 상담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회기평가의 하위요인인 상담의 깊이 평가와 순조로움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깊이 평가의 경우에는 상담회기평가 총점의 경우와 똑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순조로움 평가의 경우에는 그와는 달리 남녀 상담자의 상담에서 공히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만이 무개방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자의 상담회기 지각에 있어서의 상담자 성별의 영향은 오직 상담의 깊이 지각의 경우에만 나타날 뿐, 순조로움 지각의 경우에는 상담자의 성별에는 상관없이 상담자가 자기공개를 고친밀도 수준으로 해야만 공히 더 순조로운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상담에 있어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은 상담의 순조로움이 아니라 상담의 깊이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자가 만약 자신의 상담이 좀 더 순조로운 것으로 지각되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성별과 관계없이 상담 중 자신의 감정을 좀 더 많이 개방해야 할 것이고, 만약 자신의 상담이 깊이가 있는 것으로 지각되기를 바란다면, 남자 상담자보다는 여자상담자의 경우 특히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이 요청된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남

자상담자든, 여자상담자든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면 상담의 순조로움과 깊이의 두 측면 모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될 일은 없을 것이니, 상담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가능하면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세번째로 관찰자의 내담자 상담만족도 지각에 있어서는, 여자 상담자의 경우에는 무개방과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이 다른 두 수준의 자기개방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남자상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가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이나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면 자기개방을 안했을 때에 비해 내담자가 더 큰 만족을 느끼지만, 저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과 고친밀도 수준의 자기개방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남녀 상담자는 똑 같은 방식으로 상담을 해도 관찰자들은 상담자의 성에 따라 그 상담자나 상담을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담 역시도 우리 문화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연구방법으로 취한 모의상담연구법은 실제 상담 사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담 상황을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에도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의문에 대하여 아직 답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977년에 개정된 상

담자 평가척도(CRF)와 1979년에 제작된 내담자 상담만족도 질문지(CSQ)를 처음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의 유무를 앞으로 계속 탐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실제 상담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같은 주제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실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첫회 상담 중에서도 가장 앞의 10여분 만을 발췌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중기 상담 및 종기 상담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여 상담자 자기개방의 상담 효과를 상담의 진행에 따라 추적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상담자의 성변인에 있었는 바, 앞으로는 그와 더불어 내담자의 성 변인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됨으로써, 상담자 자기개방의 상담효과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희경(1992). 심리적 증상유형에 따른 자기노출. *성심생활*, 제11집.
 금 명자(1984). 내담자의 승인욕구와 상담자의 자기공개가 내담자의 자기공개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 교환(1990). 자기노출과 고독:종단적 연구, *학생생활연구*, 제17집, 충남대학교 학생 생활연구소.
 김 수현(1988). 상담자의 언어반응과 내담자

의 친애욕구가 상담의 과정변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 원중(1992). 사랑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최근 동향. *성심생활*, 제11집.
 마 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이 상희(1993). 상담회기평가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이 진분(1986). 학교교육과 사회화. 연세대학교 여학생처(취음), *남녀평등과 인간화*. 서울:현상과 인식.
 임 인재(1976). *교육·심리·사회연구를 위한 통계방법*. 서울:박영사.
 정 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성적 시각. *한국여성학*, 3, 132-160.
 정 진경(1992). 미래가 요구하는 인성: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강조. *한국의 사람들:한 그리고 상담*(김인자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81-92.
 조 옥라(1986).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 9-38.
 조 혜정(1988).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조 혜정저,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문학과 지성사.
 채 계숙(1988). 내담자의 자기검색 정도에 따라 상담자의 자기공개가 내담자의 자기공개의도 및 상담자에 대한 호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최 기영(198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사회화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여성연구*, 제 5 권, 제 3호, 112-140.
 한 명희(1987). 교육이념에 나타난 성의 구조. *한국여성학*, 3, 1-38.
 Braaten, L.J.(1958). *The movement from*

- nonselF to self in client centered psycho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Brooks, L. (1974). Interactive effects of sex and status on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469-474.
- Burhenne, D., and Mirels, H. L. (1970). Self-disclosure in self-descriptive essay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531-542.
- Chaikin, A. L., and Derlega, V. J. (1974a). Liking for the norm-breaker in the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42, 117-129.
- Chaikin, A. L., and Derlega, V. J. (1974b). Variables affecting the appropriatenes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588-593.
- Chelune G. J. (1976). Reactions to male and female disclosure at two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1000-1003.
- Chelune, G. J. (Ed.). (1979). *Self-disclosure*. San Francisco: Jossey-Bass.
- Cozby, P. C. (1973).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73-91.
- Curtis, J. M. (1981). Effect of therapist's self-disclosure on patients' impressions of empathy, competence and trust in analogue of psycho-therapeutic interaction. *Psychological Reports*, 48, 127-136.
- DeForest, C., and Stone, G. L. (1980). Effects of sex and intimacy level on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93-96.
- Derlega, V. J., Winstead, B. A., Wong, P. T. P., and Hunter, S. (1985). Gender effects in an initial encounter: a case where men exceed women in disclosur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 2:25-44.
- Dies, R. R. and Cohen, L. (1976). Content considerations in group therapist self-disclo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26, 77-81.
- Drag, R. M. (1969). Self-disclosure as a function of group size and experimenter behavior.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30(5-B), 2416.
- Ehlich, H. J., and Graeven, D. B. (1971). Reciprocal self-disclosure in a dyad.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 389-400.
- Frankfurt, L. P. (1965). *The role of some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factors on the acquaintance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merican University.
- Freedman, J. (1978). *Happy people: What happiness is, who has it, and why*.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Chicago: Aldine.
- Greenfield, T. K. (1983). The role of client satisfaction in evaluating university counseling service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6, 315-317.
- Halverson, C. F., Jr., and Shore, R. E. (1969).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213-217.
- Hoffman, M. A., and Spencer, G. P. (1977). Effect of Interviewer self-disclosure and

- interviewer-subject sex pairing on perceived and actual subject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83-390.
- Jourard, S.M. (1959). Self-disclosure and other-cathexi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428-431.
- Jourard, S.M. (1971). *Self-disclosur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Jourard, S.M., and Friedman, R. (1970). Experimenter-subject "distance"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278-282.
- Jourard, S.M., and Jaffe, P.E. (1970). Influence of an interviewer's self-disclosure on the self-disclosing behavior of interviewe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252-257.
- Jourard, S.M., and Landsman, M.J. (1960). Cognition, Cathexis, and the "dyadic effect" in men's self-disclosing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6, 178-186.
- Kleinke, C.L. (1979). Effects of personal evaluations. In G.J. Chelune (Ed.), *Self-disclosure*. San Francisco: Jossey-Bass.
- LaCrosse, M.B. (1977). Comparative perceptions of counselor behavior: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464-471.
- Larsen, D.L., Attkisson, C.C., Hargreaves, W.A., and Nguyen, T.D. (1979). Assessment of client/patient satisfaction: Development of a general scal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 197-207.
- Mann, B., and Murphy, K.C. (1975). Timing of self-disclosure, reciprocity of self-disclosure and reaction to an initial intervie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304-308.
- McCarthy, P.R. (1982). Differential effects of counselor self-referent response and counselor statu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125-131.
- Morton, T.U. (1978). Intimacy and reciprocity of exchange: A comparison of spouse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2-81.
- Mowrer, O.H. (1964). *The new group therapy*. Princeton: Van Nostrand.
- Nilsson, D.E., Strassberg, D.S., and Bannon, J. (1979). Perception of counselor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399-404.
- Pederson, D.M., and Breglio, V.J. (1968). The correlation of two self-disclosure inventories with actual self-disclosure: A validity study. *Journal of Psychology*, 68, 291-298.
- Petty, R.E., and Mirels, H.L. (1981). Intimacy and scarcity of self-disclosure: Effects on interpersonal attraction for males and fema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493-503.
- Polansky, N.A. (1967). On duplicity in the interview.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7, 568-580.
- Powell, W. J. (1968).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interviewer intervention in an experimental inter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210-215.
- Riley, G.D., Cozby, P.C., White, G.D., and Kjos, G.

- L. (1983). Effect of therapist expectations and need for approval on self-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221-226.
- Rogers, C.R. (1961).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ubin, Z., Hill, C. T., Peplau, L. A., and Dunkel-Schetter, C. (1980). Self-disclosur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and the ethic of open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305-317.
- Shaffer, D. R., and Ogden, J. K. (1987). Effect of self monitoring and prospect of future interaction on self-disclosure reciprocity during the acquaintanc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55, 75-96.
- Shaffer, D. R., and Smith, J. E. (1982). Self monitoring as a determinant of self-disclosure reciprocity during acquaintanc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63-175.
- Simonson, N. R. (1976). The impact of therapist disclosure on patient 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3, 3-6.
- Stanley, G., and Bownes, A. F. (1966). Self-disclosure and neuroticism. *Psychological Report*, 18, 350.
- Stiles, W. B., and Snow, J. S. (1984). Counseling session impact as seen by novice counselors and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3-12.
- Stokes, J., Fuehrer, A., and Childs, L. (1980). Gender differences in self-disclosure to various target pers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192-198.
- Thase, M., and Page, R. A. (1977). Modeling of self-disclosure in laboratory and nonlaboratory setting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 35-40.
- Truax, C. B., and Carkhuff, R. R. (1965). Client and therapist transparency in the psychotherapeutic encount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3-9.
- Truax, C. B., and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raining and practice*.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Truax, C. B., Wittmer, J., and Altmann, H. (1974). Self-disclosure as a function of personal adjustment and the facilitative condition offered by the target person. *Journal of Commutry Psychology*, 37, 172-189.
- Weigel, R. G., Dinges, N., Dyer, R., and Straumfjord, A. (1972). Perceived self-disclosure, mental health, and who is liked in group treatm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 47-52.
- Worthy, M., Gary, A. L., and Kahn, G. M. (1969). Self-disclosure as an exchange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9-63.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unselor Gender and Self-Disclosing on Counseling Evaluation

Won-Joong Kim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if counselor gender influences different effects on the counseling evaluations for the counselor's self-disclosures. Five hundred and twenty (256 males and 264 females) subjects were assigned to one of the twelve groups composed of $3 \times 2 \times 2$ factorial design, three levels of self-disclosing, counselor gender and observer's gender. After listening a counseling tape, the subjects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s: Counseling Rating Form (CRF), Session Evaluation Questionnaire (SEQ), Client Satisfaction Questionnaire (CSQ). As anticipated, the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es that there would b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ounselor gender and counselor self-disclosing on the counseling evaluations. The male counselor's low-intimacy self-disclosing resulted in positive evaluation by the observers, compared to no-disclosing. However, his high-intimacy self-disclosing did not increase the scores of the dependent variables. On the contrary, the female counselor's low-intimacy self-disclosing did not result in better evaluation than the no-disclosing session, however her high-intimacy self-disclosing finally resulted in better evaluation.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general findings by the social psychologists that our social perception of male-female interactions is related to the discloser's gender. It was discussed that our sex-role stereotypes may be the intermediate factor interpreting the self-disclosing in different ways.